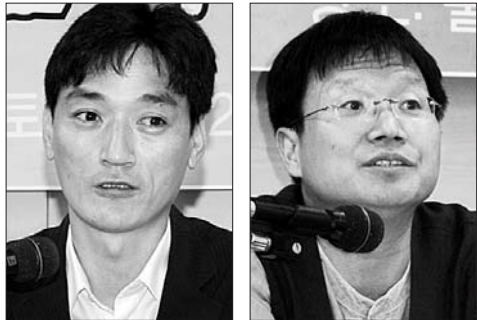


“광덕 스님, 중생 불성자로 봐”

불광연구원 학술연찬회서 석길암 교수 발표

광덕 스님은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즉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를 중생의 시각이 아닌 깨달은 자인 부처님의 시각에서 바라봤다. 때문에 스님은 생시에 ‘불성’이 아닌 ‘불성인간’ ‘불성자’ ‘무량 공덕 생명’으로 표현했다.



석길암 금강대 교수. 목경찬 불광교육원 교수.

석길암 금강대 HK교수는 8월 14일 ‘불광연구원 제2차 광덕 사상 학술연찬회’에서 ‘광덕 스님의 불성사상과 인간관’을 주제로 광덕 스님의 불성사상 및 인간관을 인도불교와 중국불교 등 동아시아불교에서의 ‘불성’과 비교해 발표했다.

석길암 교수는 <광덕 스님의 전집> 중 3권 ‘보현행원품 강’의 ‘예경분’과 그 해설문인 ‘대방동여래장경’의 구절을 들며 광덕 스님의 불성사상을 분석했다.

광덕 스님은 “예경분”에서 “내가 불인(佛眼)으로 일체중생을 보건데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 여러 번뇌 가운데 애래지(來來智), 여래안(如來眼), 여래신(如來身)이 있어서 엄연 부동하니라. 선남자여, 일체중생은 그 몸애 여러 번뇌가 있어도 여래장(來來藏)이 있어 항상 때 묻거나 물들이 없고 덕상(德相)이 완만하게 갖추어 있어 다름 바가 없느니라”고 말했다.

석길암 교수는 인도 대승불교의 여래장(來來藏)사상을 설명하는 <보성론>의 예를 들면서 “‘실유불성’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중생 안에 내재하는 어떠한 가능성’ 혹은 ‘여래가 번뇌 속에 내재돼 있다’와 같은 표현방식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석 교수는 또 “‘일체의 중생이 불성이라는 원인을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결국에는 성불할 것이다’와 같은 형태의 해석은 ‘여래장연기’나 ‘진여연기(眞如緣起)’ 같은 원인론적 해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불성 그 자체로서의 부처(佛性佛)”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중국 삼계교의 보불신앙을 언급하며 “삼계교의 시각이 화엄과 선종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이러한 맥락에서 광덕 스님이 설명하는 불성은 ‘가능성’이나 ‘잠재태’가 아니라 ‘살아서 활

발발 맥동하는 것’이고 ‘한량없는 공덕상 그 자체’라고 해석했다.

광덕 스님은 스스로 자기를 중생이라 착각하는 이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믿음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석 교수는 “선사였던 스님은 불성법의 핵심골격으로 큰 믿음(大信), 큰 분심(代憤志), 큰 의심(大疑情)의 셋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석 교수는 “광덕 스님에게 있어 불성 혹은 반야바라밀은 도달해야 할 목표지점이 아니다. 그것은 목표지점으로서보다는 출발점으로 서 설해진다. 그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출발점에서 동일생명(同一生命)이 확신되기 때문에 중생은 불성이 아니라 ‘불성인간’이 되고 예경의 대상이 되고 공양의 대상이 되고 공양의 대상이 찬탄의 대상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고 말했다.

목경찬 불광교육원 교수는 ‘무한 생명 사상’을 주제로 광덕 스님이 자주 사용했던 ‘무한생명’이라는 표현을 고찰했다.

목경찬 교수는 “광덕 스님과 관련해서는 유독 ‘생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 생명이란 다름 아닌 ‘불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광덕 스님은 ‘불교에서 본 인간 생명과 그 가치’라는 글에서 ‘무한 공덕 생명’을 법성생명(法性生命) 또는 불성생명(佛性生命)이라고 표현했다.

목 교수는 “광덕 스님은 참으로 있는 것을 본 생명이라고 본다. 그러한 본 생명이 특정한 인이나 누구의 전 유물이 아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내 생명껏 사는 것, 이것이 불자의 삶이라고 누차 강조한다”며 “즉, 우리는 늘 부처님과 함께 있으며, 지공덕 생명력을 받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나 기자

불상에 근대 옷 입힌 불모

미술평론가 윤범모 교수 ‘김복진 연구’ 서 조명

정관 김복진(1901~1940)은 일제 식민통치 시기에 한국 근대미술의 토대를 이룩한 선구적인 미술작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는 일반 조소작가와 달리 전통적 불상예술에도 일가를 이루는 근대기 불상조각의 모범을 선보인 ‘불모(佛母)’였다.



김복진(1901~1940)

그의 대표적인 불상 작품으로는 <금산사 미륵전 본존상> <속리산 법주사 미륵대불(미완성)> <정혜사 관음보살 좌상> 등이 있으나 그의 작품이라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야 알려졌다.

불교미술비평과 미술평론가인 윤범모 교수(경원대)는 30여 년간 김복진의 작품발굴과 연구에 전착했고 그의 작품과 삶 및 사상을 조명한 학술서 <김복진 연구>(동국대출판부)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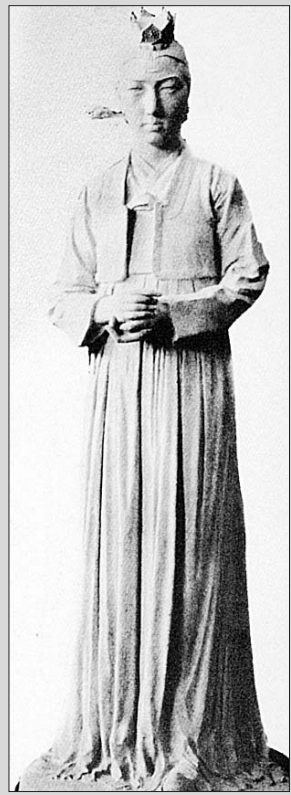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김복진은 1925~1940년 요절할 때까지 5년 반가량의 옥중생활을 제외하고 10년 정도에 불과한 짧은 기간 동안 근대기 최초의 조소작가로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윤범모 교수는 “김복진은 미술평론가, 문예운동가, 사회주의 조직운동가 등으로 다재로운 활동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미흡하다”며 “그의 유적이 전무한 이유와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직계가족의 단절과 사회주의 활동 경력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소작가로서 김복진은 나무상(木像)과 같은 일반 작품에서부터 기념 조형물이나 불상과 같은 작품 50여 점을 제작했다. 그의 일반 작품 가운데 <백화>와 같은 작품은 전통적 소재를 새롭게 조형화한 것이고, <소년>은 식민



김복진, ‘금산사 미륵전본존상’ 소조 입상, 1936. 금산사 미륵전 봉안.



김복진, ‘백화’, 1938, 조선미술출품작.

지하의 시대정신을 염두에 둔 대 표작에 해당한다.

특히 불상조각의 모범을 선보이는 그가 조성한 불상은 주로 미륵상으로 신라 불상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해 근대성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재료의 사용에 있어 금산사의 소조에서부터 미완의 <법주사 미륵대불>의 시멘트에 이르기까지 재료의 다양화를 시도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금산사 미륵불의 마케트(모형)에 해당하는 계통산 소립원 소장 <미륵불 입상>을 발굴·확인해 소개하고 있다.

김복진은 조소작가로서 일가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1920년대 진보적 문예운동사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한 예술가였다. 그는 동생인 김기진, 그리고 박영희 등과 함께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KAPF)을 주도적으로 결성했고,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다.

또한 그는 고려공산청년회 조직 책임을 맡아 일제하 광우학생 운동사건과 같은 민족독립운동

의 한 흐름을 형성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이후 김복진은 1927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돼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배제하고 조선의 독립을 도모”한 이유로 5년 6개월간 투옥생활을 했다.

윤범모 교수는 “김복진은 여태껏 감옥생활 중에 불교에 귀의, 불상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복진은 이미 도쿄 유학 시절 도쿄의 한 사찰에서 독도한 불자였다”며 “그는 승려 생활까지 체험했을 정도로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었으며 이 같은 불교 체험의 결과가 본격적인 불상작품을 제작하게 된 배경일 것”이라 추측했다.

윤 교수는 또 “김복진은 진보적 사상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전통, 그 중에서도 불교사상에 심취했다. 그는 전통과 진보 혹은 민족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 등의 갈래에서 민족미의 근대적 구현에 하나의 전형을 남긴 선구적 작가였다”고 평가했다.

이어나 기자

물고기 든 관음보살벽화 발견

불국사 대웅전 후불벽서 2점 드러나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박하)을 통해 추진 중인 ‘사찰건축물 벽화 조사사업’ 중 경주 불국사 대웅전 후불벽에서 어람보살 등 2구의 관음보살 벽화를 발견했다”고 8월 19일 발표했다.

이들 벽화는 후대에 덧칠해진 호분(糊粉)에 가려져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올해 초 성보문화재연구원의 예비조사 과정에서 존재가 확인됐다.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적외선 촬영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도상(圖像)을 판독하게 됐다.

현재까지는 각각 세로 4.3m, 가로 1.8m 내외 크기의 백의관음보살도(白衣觀音菩薩圖)와 어람관음보살도(魚籃觀音菩薩圖)가 확인됐다. 어람관음은 33관음중 하나로 나찰, 독룡, 아



불국사 대웅전 후불벽 어람관음도 벽화. 윤곽이 뚜렷치 않아 추정도를 곁친 모습.

귀의 해를 제거해 준다. 물고기를 타고 있거나 물고기가 가득찬 어람(소쿠리)을 들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들 벽화는 18세기의 도상적 특징을 갖춘 18세기 불화로 판단된다”면서 “이중 어람관음 보살도는 현존하는 벽화 중 17세기

조성된 양산 신홍사 것을 제외하면, 18세기 벽화로는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들 벽화에 대한 정밀조사는 최근 완료됐고, 조사결과는 올해 말 발간할 <한국의 사찰벽화(경북 남부편)>에 수록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개신교 학자가 본 부처님 생애

김행선 ‘...석가모니 생애와 사상’

한 개신교학자가 부처님의 설법이 담긴 <법구경> <아함경> <숫타니파타> <빠알리경전> 등 초기경전을 토대로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을 정리한 학술서가 나왔다.

김행선 고려대학교 사학과 강사는 그동안 대학에서 가르친 강의안을 바탕으로 <초기 경전에 나타나는 석가모니의 생애와 사상>(선인)을 펴냈다.

김행선 강사는 “기존의 기독교는 한국전쟁 이후 1960~1970년대 근대화 과정 및 경제발전 과정과 관련해 강화된 기독교와 물질지상주의 및 성장제일주의 신앙에 경도돼 배타적이고 획일적이며 경직된 교리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신앙은 예수의 참 진리와도 맞지 않는 것이고, 다른 종교와의 갈등과 대립만 부추길 수 있다”며 “이러한 경향성을 극복하고 보다 열린 개방된 신앙의 자세로 타종교와의 진리의 연대성과 공존을 위해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을 보다 객관적이고 인간적 관점 및 역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행선 강사는 저서에서 △석가모니 사상의 탄생배경 △석가모니의 생애와 불교의 역사 △석가모니의 핵심 사상 △석가모니의 세계관과 인생관 △석가모니의 중심사상 등을 살폈다.

이어나 기자

2010년 하반기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주2일 교육,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0년 7월 30일 부터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0년 9월 9일 목요일

◇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대각스님, 서무선박사님, 김진걸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교 예술 대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 원서교부 : 2010년 7월 30일 ~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10년 9월 7일 화요일

제천불교여자전문대학

◇ 불교교리 : 경, 율, 론, 선, 밀교

◇ 불교의식 : 조석예불, 불공, 시식, 장엄염불 등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목요일 오후 3시까지

◇ 교육장소 : 제천 금강사(충북 제천시 모산동)

◇ 개 강 : 9월 8일 (수) 오후 2시

◇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도기스님, 대각스님, 서무선박사님, 김진걸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 활안 한정섭스님의 경전 강의 -
월요경전반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기초반 1시 30분 연구반 3시 30분

◇ 개 강 : 2010년 9월 6일 월요일